

석사학위작품

일상, 멈춰있지만 멈춰 있지 않은 순간

2024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윤 여 경

석사학위작품
지도교수 김선태

일상, 멈춰있지만 멈춰 있지 않은 순간

Daily Life, The moment when it's stopped but not stopped

202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윤 여 경

석사학위작품
지도교수 김선태

일상, 멈춰있지만 멈춰 있지 않은 순간

Daily Life, The moment when it's stopped but not stopped

위 작품을 미술학 석사학위 작품으로 제출함

2023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윤 여 경

윤여경의 미술학 석사학위 작품을 인준함

202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전동호 (인)

심사위원 김신영 (인)

심사위원 탁현규 (인)

일상, 멈춰있지만 멈춰 있지 않은 순간

**그림 속 인물은 한순간에 머물러있다.
“나는 어제 3시에 어떤 순간을 지나쳤을까?”**

‘순간’이란 아주 짧은 동안을 뜻하는 명사이다. 그림 속 인물은 어떤 순간에 멈춰 있지만 이야기는 멈춰 있지 않다. 누구에게나 자연스레 흘러가는 일상이 있다. 아침에 힘겹게 눈을 뜨는 순간, 점심 메뉴를 고민하는 순간,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일상을 흘러보내고 지나친다.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했던가, 어떤 이는 같은 일상의 시간을 여유롭게 흘러보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바쁘게 흘러보냈을 것이다. 작가는 일상 속 찰나의 순간에 머물러 보고자 한다.

빈 종이에 점 두 개를 찍고 아래에 선을 하나 그려보면 사람 표정처럼 보인다. 점은 두 눈으로 보이고 아래의 선은 입꼬리처럼 보인다. 점 두 개에게 선은 굉장히 중요한데 선의 곡선에 따라 다양한 표정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은 미세한 선의 움직임 속에서 인물의 감정, 상태를 떠올린다. 작가의 그림 속 인물의 얼굴은 섬세하게 표현되어 차분한 표정과 동작을 취하고 있지만 인물 주변의 모습은 비현실적으로 일그러져 있거나 텅 비어있다. 인물의 손바닥 속 찡그린 얼굴, 일그러져 흘러가는 몸, 수북하게 쌓인 머리카락 등은 인물이라는 점 두 개에게 주어진 선의 곡선이 된다. 이 장치들은 단조로운 이미지의 인물에게 조명을 비추듯 밝혀준다.

〈~를 기다리다〉는 인물이 턱을 괴고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이미지이다. 인물을 뒤로 직사각형은 창문을 떠올리게 할 장치로 비단 위 담한 채색과 배채를 통해 배경과 직사각형의 경계가 거의 보이지 않아 인물이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 헷갈리게 한다. 인물은 사람을 기다리거나 선물을 기다리는 등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무언가를 기다릴 때 머릿속은 기다리는 대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인물이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겨 굳은 표정은 어떤 대상을 기다리고 있는지 호기심을 일게 한다.

〈기회〉는 인물이 털로 이루어진 물방울 모양의 일명 털방울을 들고 있다. 인물의 표정은 무표정이지만 시선은 앞을 바라보고 있다. 주위의 여백은 인물과 인물이 들고 있는 물체의 관계에 대해 상상하게 한다.
털방울은 ‘기회를 잡다’ 라는 표현에서 시작되었다. 털이 물방울 모양으로 생긴 이유는 손에 닿으면 흘러내리는 물방울이 털로 되어 있다면 손바닥 위에 흐르지 않고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털방울은 흐르는 물이 되지 않아 잡히는 대신 투명하다. 털방울이 언제 물방울로 변할지 모르는 것처럼.
기회는 잡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것처럼.

〈따라하기〉는 인물이 닭처럼 머리카락으로 깃털을 따라 하는 것을 표현했다. 어렸을 적 그림을 처음 그리게 되었을 때 미술책에 나오던 유명 작가들의 그림을 모작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모방과 창조가 연결되어 있듯 그림을 따라 그리며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림 속 닭은 인물이 따라 하고 싶은 대상을 투영한다. 닭이 있는 공간과 인물이 있는 공간은 긴 직사각형으로 구분된다. 따라 하고 싶은 대상인 닭이 있는 공간은 하늘이 보이고 따라 하는 대상인 인물이 있는 공간은 하얗게 비어있다. 이는 인물과 닭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집중하게 한다. 주위의 여백은 인물의 무궁무진함을 표현한다.

〈손거울〉은 자화상으로 우연히 거울 속에 비친 본인을 보며 생각했다. 거울을 보지 않을 때, 거울 속 인물의 어떤 순간이 비치고 있는지 모른 채 지나간다. 하지만 거울을 보는 순간 거울 속 인물은 멈춘다. 손바닥을 펴 모아 바라보고 있는 인물의 뒷모습을 그렸다. 뒤돌아 있는 인물의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인물이 바라보고 있는 손바닥에 표정이 비친다. 인물의 표정을 그대로 비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표정이 비치고 있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게 했다. 비단을 바탕으로 주로 염료를 이용해 담하게 채색했다. 인물의 얼굴과 손바닥의 표정을 강조해 묘사하고 주위의 여백은 인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전통적인 방식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해준다. 비단에 그림을 그리고 한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은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 순간을 느긋하게 머물기 좋기 때문이다. 비단과 종이를 틀에 붙이고 말리는 일부러 바탕에 반수를 하는 일, 첫 먹 선을 긋는 순간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에 의해 만들어진다. 작가의 그림은 주로 비단에 그려졌다. 비단은 앞, 뒤를 사용해 평면적이면서도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평면적이며 입체적인 비단 그림은 멈춰있지만 멈춰 있지 않다는 주제에 어울리는 재료라고 생각했다. 비단에 올라가는 채색 재료는 분채와 봉채를 섞어 사용했다. 분채는 선명하고 풍부한 색채를 낼 수 있는 안료로서 그림의 무게를 잡아주었다면 봉채는 투명하며 깊이 있는 색채 표현으로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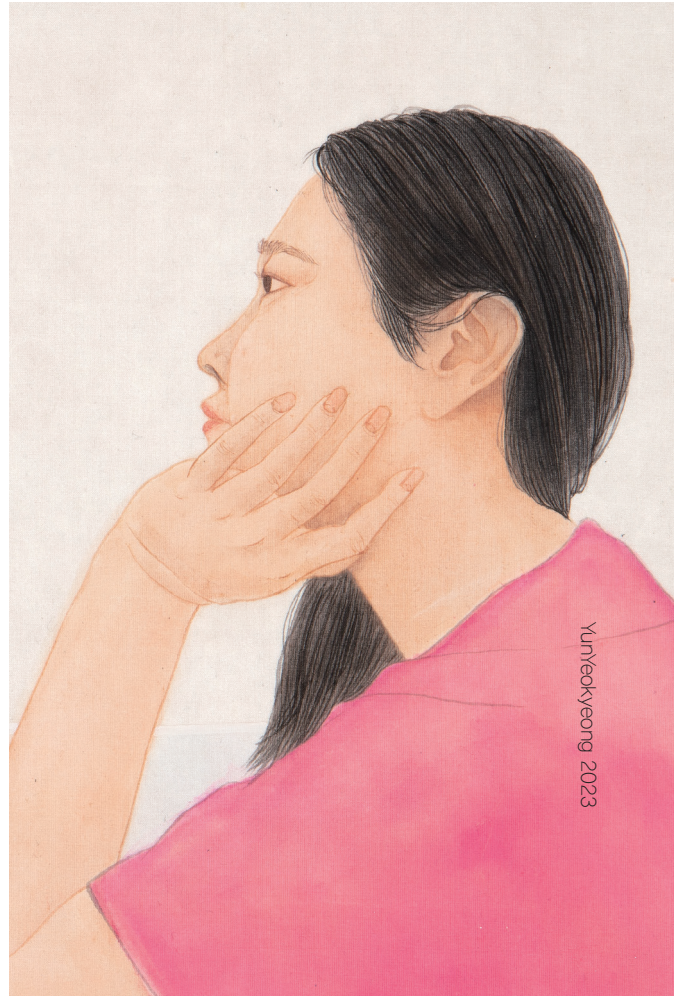
그림은 흘러가는 일상의 순간을 담기 좋은 그릇이 된다. 그림 속 인물은 평면적인 한 장면으로 멈춰 있지만 그림의 시간은 흐르고 있다. 인물이 보이는 태도, 표정, 배경에서 다양한 드라마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 그림 속 인물의 표정은 절제되어 있고 조용하지만, 주변의 허구적인 표현이나 비어있는 공간을 이용해 인물의 흐릿한 표정에 집중하게 하고 궁금증을 자아낸다. 오히려 인물의 무표정이 인물의 감정, 시간 속 흐름의 광경에 집중되게 하는 것이다. 어딘가를 응시하는 인물의 배경은 비어있거나 어느 마을의 풍경이 펼쳐져 있다. 이는 인물이 머무르고 있는 장소를 상상하게 한다. 손바닥에 비치는 일그러진 표정, 감은 눈 아래로 물결치는 듯 흐르는 상반신, 부푼 머리카락을 붙잡는 여러 명의 손, 털로 이루어진 물방울은 인물이 시간의 흐름 속 지나쳤을 감정을 상상하게 한다.

그림 속 인물의 이야기를 상상하고 떠올린다면 작가의 그림은 멈춰 있지만 멈춰 있지 않은 그림이 된다.



YunYeokyeong 2023

Daily Life
The moment when it's stopped but not stopped



~를 기다리다

45.4x37.9 (cm)
비단에 채색, 2019



기회

90.9x72.7 (cm)
비단에 채색, 2023

Daily Life
The moment when it's stopped but not stopped



Yun'yeokyeong 2023





따라하기

72.7x60.6 (cm)
비단에 채색, 2023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Daily Life
The moment when it's stopped but not stopped

Yun'yeokyeong 2023



뭐였더라

72.7x60.6 (cm)
장지에 채색, 2023

과거를 되돌아 보다 보면 내가 했던 행동, 말, 표정이 떠오른다.
좋았던 기억은 내 마음을 붙잡지만 안 좋았던 기억은 내 발목을 붙잡는다.

YunYeokyeong 2023



Daily Life
The moment when it's stopped but not stopped

Yunyeokyeong 2023

불잡아보면

91x116.8 (cm)
비단에 채색, 2022

YunYeokyeong 2023





손거울

118x76 (cm)
비단에 채색, 2020

거울을 보며 표정을 짓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거울을 안 볼 때 거울에 비치는 내 표정은 어떨지?



영감

90×72 (cm)

비단에 채색, 2022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보면 일상의 풍경이 보인다.

커피를 들고 걷는 사람, 건물로 들어가는 사람, 길가의 가로수, 수많은 자동차들.

일상을 관찰하다가 지그시 눈을 감으면 일상의 풍경은 조금 색다르게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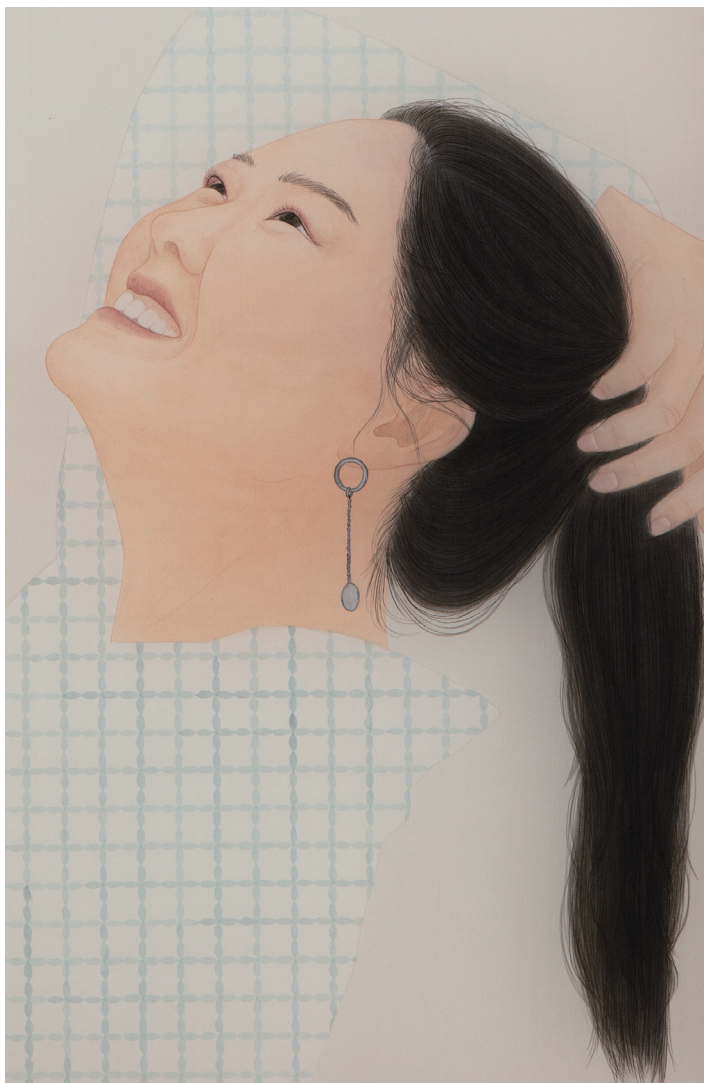
일상적 경험은 때론 새로운 영감을 준다.

Daily Life
The moment when it's stopped but not stopped

Yunyeokyeong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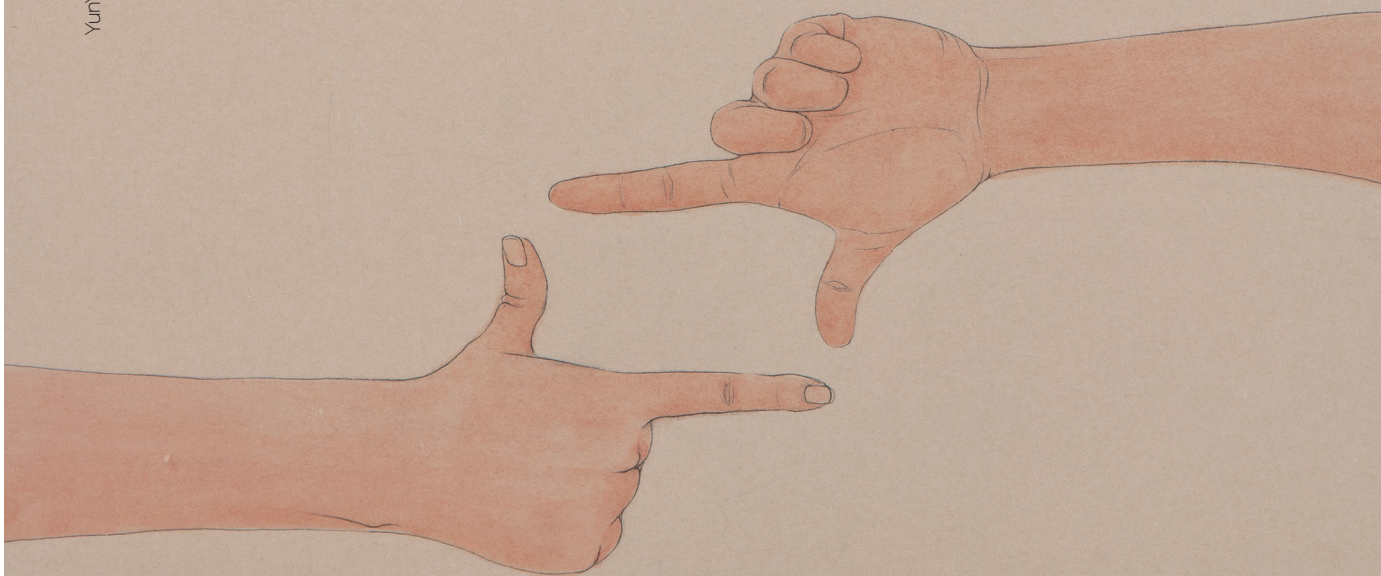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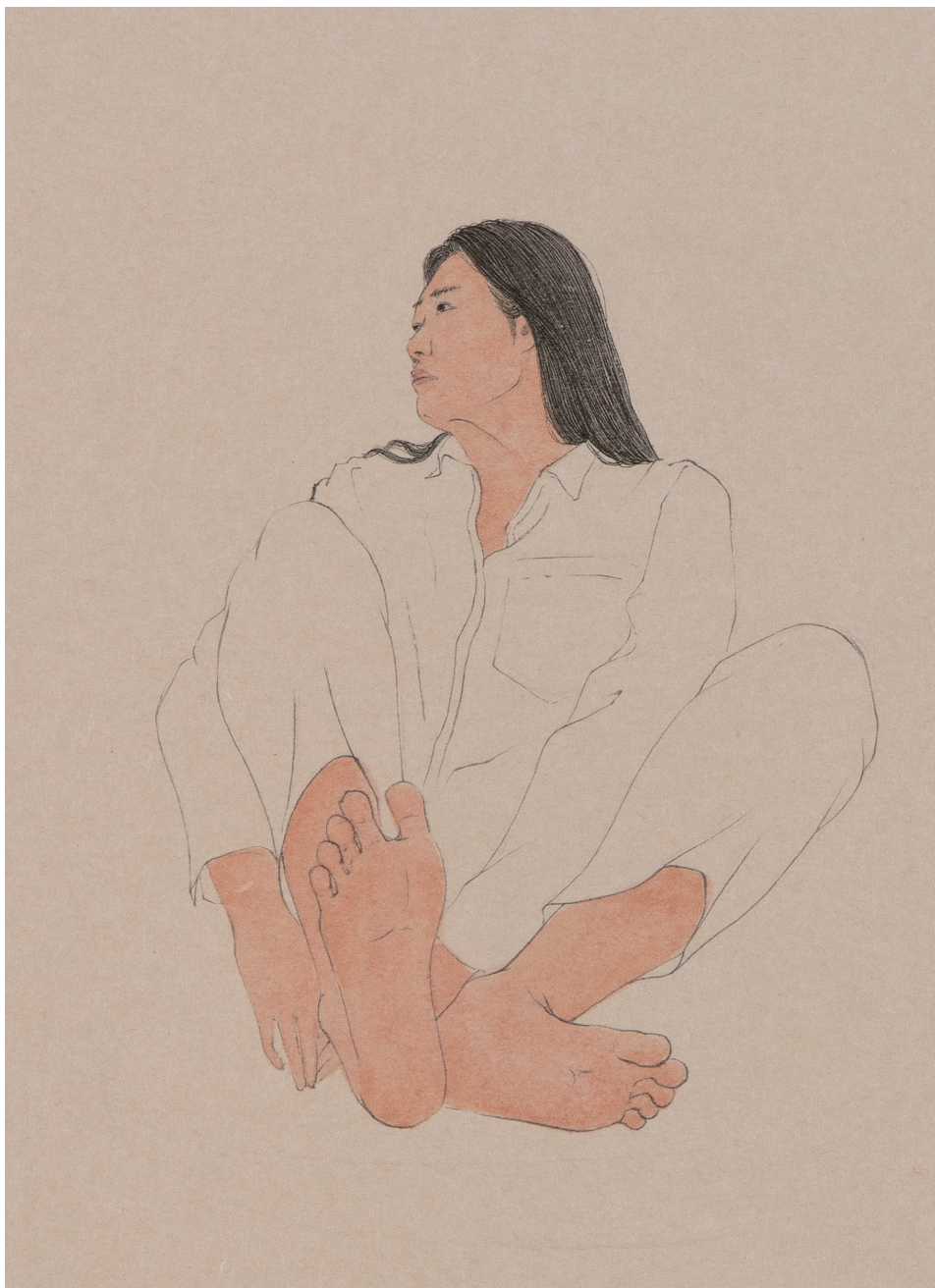


Yun'yeokyeong 2023

자화상

91x72,5 (cm)
비단에 채색, 2019





Yunyeokyeong 2023

전시

72.7x60.6 (cm)
장지에 채색, 2023



Daily Life
The moment when it's stopped but not stopped

Yun/yeokyeong 2023



꿈

64x52 (cm)
비단에 채색, 2023